

# 효성, 일본에 폴리에스터 원사 공급

의류 메이저 유니클로에 기능성 <아스킨> 판매 ... 티셔츠 600만장 분량

효성(대표 조석래)은 일본 대형 의류 생산기업에 폴리에스터(Polyester) 원사를 공급한다.

효성은 세계 3대 의류 브랜드인 일본 유니클로(Uniqlo)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기능성 폴리에스테르 섬유인 <아스킨> 원사를 공급한다고 7월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효성은 유니클로가 2011년 출시하는 티셔츠 600만장 분량의 아스킨 원사를 공급기로 했다.

아스킨 원사는 땀 흡수가 좋고 빨리 마르는 장점이 있는 냉감(冷感) 소재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성 섬유다.

효성 관계자는 “유니클로가 아스킨 원사를 사용한 제품을 2010년 출시해 소비자의 반응이 뜨겁자 2011년을 대비해 대규모로 원사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유니클로는 또 캐주얼 가방에도 효성의 기능성 섬유 <로빅-에어>를 모두 사용키로 했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7/16>